

신규 원전 및 자원 안보 분야 협력 방안 모색 등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 협력 가속화

- 정상임석 下 베트남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양해각서 체결 -
- 한-베 산업부 장관 면담시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지속 논의 -

산업통상부는 4.22일(수)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방문 계기 정상 임석 下 열린 MOU 교환식에서 양국 원전기업 간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 산업에너지공사(PVN)가 체결한 동 MOU는 한국형 원전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기업은 지난 8월 또 럽 당서기장의 방한 계기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하며 원전협력을 본격화한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원전협력 분야가 신규원전 건설로 확대되었다.

향후 한전과 PVN은 닌투언2 원전 건설을 위해 원전 공급망 협력, 사업 수익성 분석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신임 산업무역부 레마잉 흥(Le Manh Hung) 장관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양국간 닌투언 2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자원 안보 및 희토류 등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면담 전 오전에 별도로 가진 원전·에너지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때 제기되었던 LNG 발전소 금융조달 애로를 위한 제도 보완, 희토류 수급 확보 등 우리기업의 애로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베트남의 원유 비축기지 건설시 많은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 서울에서 제15차 한-베 산업 및 제9차 FTA 공동 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산업통상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4월 23일(목) 하노이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작년 10월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이번 체결한 MOU를 통해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정례적 소통 채널을 신설하고 신규 통제조치 도입 등을 사전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계속해서 교역·투자 3위 국가이며 제조 수출 전진기지인 베트남과의 경제 연대를 강화하고 양국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끝.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민문기 (044-203-5710)
		담당자	사무관	이혜영 (044-203-5714)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동환 (044-203-5280)
		담당자	사무관	우지식 (044-203-5283)
	무역안보정책국 무역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830)
		담당자	서기관	김지연 (044-203-4832)